

戰國시기를 중심으로 본 信관념의 변화*

-제주지역 공유재 연구를 위한 담론II-

정창원**

- I. 서론
- II. 전국시대의 맹세와 불신
- III. '信'관념변화의 영향
- IV. 결론

국문요약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s)의 사용과 관리”는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사회적인 약속 - 信”이라는 관념적 기초에서 파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자간의 의식 속에 함유된 信의 관념이 유지될 때 비로소 공유재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약속 또한 합리적인 구속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춘추시대 인식된 信의 관념은 그 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信의 윤리도덕에 내재된 의미는 외부의 열악한 시공과 환경으로 좌절될 수 없지만, 현실정치의 이해와 충돌하였을 때에는 信의 관념이 희생되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信이라고 하는 윤리도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0-B00108)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조교수.

덕에 내재하고 있는 의미는 여전히 사람이 처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서 중요하고 영원불변한 기본덕목일 것이다.

춘추전국시대의 정치발전은 ‘信’에 대한 관념이 변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형성은 두 가지 신흥세력인 종횡가와 병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종횡가와 병가의 공통 목표는 모두 국가로 하여금 강성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패하지 않는 위치에 서는 것일까라는 점이었다. 현실정치의 환경에 처해서도 그들은 ‘信’의 도덕적 관념을 지킬 수 없었고, 또한 그들의 행위는 전국시대 ‘信’을 중시하지 않는 기풍을 형성하게 하였다. 秦의 통일에 따라 ‘信’의 관념은 도구적인 용도로 변하여 통치의 방법이 되었고, 그 이전시기와는 다르게 도덕적 범주를 벗어났다. 진은 법에 의거하여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자연히 법가적 통치방법을 계승하였다. 법가는 ‘信’을 국가 통치의 도구로 삼았고 군주가 ‘信’이 있어 여러 도덕적인 역량에 호소하지 않는 것이 신민을 다스리는데 이로웠는데 이는 당연히 통일제국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춘추시대부터 전국시대까지 ‘信’의 관념은 확실히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 중에는 또한 영원불변의 부분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주제어 : 信, 利, 戰國時代, 자연의 공공적 관리

1. 서언

약속은 만물 중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성이다. 그것은 곧 信義와 통한다. 그렇다면 信이라는 관념이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그 가치에 內在된 의미가 外在된 장애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던 것인지, 혹은 윤리도덕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長久한 중국역사에서 「信」이라는 행위가 개인의 도덕적 행위로 자리하게 된 시기를 特定할 수는 없다. 다만 先秦시기 비교적 완벽한 사상체계가 儒家에 의해 건립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春秋시대부터 信이

윤리도덕의 주요 관념으로 그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시기 諸子の 信에 대한 견해에는 相異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도덕윤리적 관념 중 하나로 信이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하였다.¹⁾ 춘추시대에는 예와 악이 붕괴되고 周 天子의 지위가 상실되어 宗法질서에 의존하여 유지되었던 천하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었다. 그 결과, 천하의 질서는 패주와 서약, 결맹 등과 같은 각 국가 간의 정치·외교적 관계에 의존하여 유지되었다.²⁾

당시 사람들이 信이라는 관념을 重視하였다는 사실은 회맹정치의 발흥과 발전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춘추시대 각 국가 간의 외교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한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춘추시대의 정치로 하여금 상당한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서로를 구속할 수 있었던 기반은 바로 信이라고 하는 관념이었다.

信이 갖고 있는 윤리도덕의 관념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시대적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외부의 열악한 시공과 환경으로 인해 그 관념 속에 내재된 근원적 윤리도덕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춘추시대에 이어 펼쳐진 전국시대는 그 시대적 성격이 전과는 매우 相異하다. 시대에 흐름에 따라 信의 관념 또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록 信이라고 하는 윤리도덕에 내재하고 있는 의미는 여전히 사람이 처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 중시되는 기본덕목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전국시대 각 국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정치의 利害와 충돌하였을 때에는 信의 관념이 희생되는 면도 발생하였을 것이다.³⁾

“공유재의 사용과 관리”라는 현대사회에서의 끊이지 않는 논쟁은 역

-
- 1) 張繼軍, 『先秦道德變遷論』, 黑龍江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汪濤, 『先秦儒家誠信思想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張魯君, 『先秦儒家“信”觀念研究』,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 2) 徐杰令, 「春秋邦交思想述論」, 『求是學刊』2003年 01期, 黑龍江大學, 2003; 陳智勇, 「試析春秋盟誓對春秋時人的影響及時人對盟誓與盟主的評價」, 『中國歷史博物館館刊』2000年 02期, 中國國家博物館, 2000.
 - 3) 정창원, 「중국 춘추시기를 중심으로 본 신(信)관념」, 『탐라문화』4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182-183쪽.

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사회적인 약속 - 信”이라는 관념적 기초에서 파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공유재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약속 또한 합리적인 구속력은 다자간의 의식 속에 함유된 信의 관념이 지켜질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사회적 약속인 「信」관념이 중국의 고대사회, 그 시대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변모해 가는지에 대해 탐색해 보기로 하였다.⁴⁾ 본문에서는 전국시기의 정치상황 하에서 信관념의 변화가 가지고 온 시대의 변화상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중국고대시기의 기풍이 어떻게 변화해 나아갔는지에 대한 탐색과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된 영향에 대해서도 관찰해 보고자 한다.

II. 전국시대의 맹세와 불신

信은 선진유가에 의해 명확한 윤리사상체계로 수립되었다. 유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덕윤리와 사회정치 사이에 구별이 없었다.

개인은 윤리도덕의 수양을 통하여 몸소 孝·悌·忠·信·禮·義 등과 같은 윤리도덕규범을 실천하였고, 이것이 바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는 관료로 종사하며 정치에 종사하는 길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었다. 聖人이 이 시기 능히 천하에 왕 노릇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숭고한 도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儒家 이외에 제자백가 또한 信에 대해 토론하였다. 道家에서 말하는 도덕은 자연적 천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바로 통치자와 일반백성 사이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다.⁵⁾

춘추시기 이루어진 회맹에서는 信을 중시하는 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春秋』에 기재된 242년 중, 朝·覲·盟·會는 무려 450여 차례에 이른다.

3) 공유재의 지속적 관리라는 문제의식을 위한 기초적 작업의 일환으로, 필자는 위의 논문 「중국 춘추시기를 중심으로 본 신(信)관념」을 통해 동양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태동하게 되는 중국고대의 춘추시기를 중심으로 信관념의 인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5) 傅劍平, 『縱橫家與中國文化』, 臺北, 文津出版社, 1995, 144-145쪽.

춘추이전에는 「제후로 하여금 매년 聘問함을 자기의 志業으로 하고, 2년에 朝覲를 한번 행함으로써 예의를 강습하고, 다시 朝覲함에 제후와 모임으로써 위엄을 드러내고, 다시 모여 결맹함으로 신의를 보인 것」⁶⁾이지만, 춘추시대에 보이는 다수의 맹회는 바로 信을 공고히 하고자 함이었다. 信을 기반으로 하는 맹회가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은 당시 열국관계에 있어 信이 중시되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비록 춘추시대에 신하가 군왕을 죽이는 등의 배신과 신의를 저버리는 예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상으로는 여전히 도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⁷⁾

그러나, 전국시대 각국이 패권투쟁을 진행할 시점에서는 이익을 위해 서라면 서로 속이기도 마다하지 않았다. 때문에 ‘信’이라는 것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도 그에 따라 변해갔다. 사마광이 『資治通鑑』에서 기술한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臣光이 말하기를 중흥의 설은 비록 반복되었고, 백 가지의 실마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대체적인 요점은 함종이라는 것은 6국에게 이익입니다. 옛날에 先王께서 만국을 세우고, 제후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로 하여금 朝聘하면서 서로 사귀게 하고 향연을 베풀며 서로 즐기라고 하였으며, 회맹으로 서로 관계를 맺도록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함께 하고 힘을 다하여 집안과 나라를 보존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가령 6국으로 하여금 능히 신의로써 서로 친하게 할 수 있었다면 진이 비록 강폭하다고 하여도 어찌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⁸⁾

상술한 인용문에 따르면, 사마광은 ‘이익’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상황이 바로 진이 능히 천하를 통일한 주요 원인이

6) 『左傳·昭公十三年』, 『春秋左傳今註今譯』 下冊,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 71年, 1164條: 故明王之制, 使諸侯歲聘以志業, 間朝以講禮, 再朝而會以示威, 再會而盟以顯昭明. 志業於好, 講禮於等, 示威於衆, 昭明於神.

7) 徐難子, 「試論春秋時期的信觀念」, 『中國史研究』 1995年 第4期,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1995, 41쪽.

8) 司馬光, 『資治通鑑·秦紀』, 臺北, 宏業書局, 民國 82年10月, 再版, 234條: 臣光曰; 從衡之說雖反覆百端, 然大要合從者, 六國之利也. 昔先王建萬國, 親諸侯, 使之朝聘以相交, 饗宴以相樂, 會盟以相結者, 無他, 欲其同心戮力以保國家也. 向使六國能以信義相親, 則秦雖強暴, 安得而亡之哉!

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시대에 각 국은 힘을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정치적 합작은 이익의 결합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회맹은 더 이상 강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이 쇠락되어 갔다. 戰國이라고 하는 잔혹한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적 천하질서의 시대는 지나갔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이는 아래 인용된 『전국책』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周室이 문무로부터 흥하였으니 도덕을 높이고 예의를 극진하게 하였다. … 춘추시기에 이르러 이미 45백년이나 그 유업이 남아 강렬하여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아 오패가 일어났어도 주실을 높여 섬겼다. 오패의 이후에는 때로 군왕이 비록 덕이 없기도 하였으나 신하가 그 군왕을 보좌하였으니, 鄭의 子産, 晉의 叔向, 齊의 晏嬰은 군왕을 도와 정치를 행함으로써 나라의 가운데에 나란히 서서, 마땅히 의로써 서로 지탱하고 노래로써 서로 마음을 움직이며 聘覲으로 서로 교제하여 약속에 따라 모여 서로 하나가 되니 맹세로써 서로 구하였다. 천자의 명이 오히려 행해진 바가 있었다. 모여 계사지내는 나라는 도리어 부끄러운 바가 있었다. 小國은 의지할 곳을 얻었고, 백성은 쉴 곳을 얻었다.⁹⁾

설령 춘추는 맹세와 신의로써 서로 지키는 정황이 다시 보이지는 않았지만, 江永은 「論盟詛」에 기록하기를

춘추시기에 이르러 盟詛는 날로 번거로워져 비록 되풀이하여 맹세하여도 혼란이 길어지고 고쳐지지 않음을 알게 되니, 그 후에 맹세가 넘쳐 믿지 않은 바가 많기에 이르렀다. 明神으로도 또한 誅殛할 수 없게 되니, 사람들은 맹의 무익함을 알게 되었다. 戰國시기에 이르러 이러한 풍조가 점차 쇠하고 가벼워져 마침내 楚가 盟을 중용하여 정함이 단지 한번 보일 뿐이었다. … 즉 盟詛의 일은 세태가 변함을 볼 수 있음으로, 그 성함을 당하여도 비록 성인이 設官制禮하지 않을 수 없다면 일약 그 나쁜 것을 조장하게 되어 쇠퇴함에 이르는 것이

9) 『戰國策·劉向書錄』, 臺北, 里仁, 民國 71年, 1195-1196쪽 : 周室自文武始興, 崇道德, 隆禮義 … 及春秋時, 已四五百載矣, 然其餘業遺烈, 流而未滅, 五霸之起, 尊事周室. 五霸之後, 時君雖無德人, 臣輔其君者, 若鄭之子産, 晉之叔向, 齊之晏嬰, 挾君輔政, 以並立於中國, 猶以義相支持, 歌詠以相感, 聘覲以相交, 期會以相一, 盟誓以相救. 天子之命, 猶有所行. 會享之國, 猶有所耻. 小國得有所依, 百姓得有所息.

니, 법령으로 금하고 경계함을 기다리지 않아도 스스로 멈추게 되는 것이다.¹⁰⁾

라고 하였다. 즉, 전국시대 정치에는 권모술수가 난무하여 도덕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信’은 이미 구속할 수 있는 역량이 소멸되었고, 맹세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史記·張儀列傳』에서 장의가 魏王에게 거듭 말하기를:

그리고 제후로서 합종을 하는 것은 장차 사직을 편안하게 하고 입금을 높이며 군대를 강대하게 하여 이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제 합종하는 자가 천하를 통일하고자 형제처럼 되기를 약속하고 백마를 잡아 洹水에서 맹약하여 서로 굳게 지키기로 하였습니니다. 하물며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도 오히려 재물을 다투는 일이 있는데, 거짓과 속임수를 반복하는 소진의 계락을 믿으려 하시니 그것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¹¹⁾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縱橫家, 兵家の 흥기는 바로 권모술수로 이익을 취하는 시대가 출현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전 시기에서 보이는 신의에 기반을 둔 외교적 행위는 이미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戰國策·劉向書錄』에서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

탐욕스럽고 부끄러움이 없어 실증을 모르고 나아간다 ; 나라마다 정사와 가르침이 달라 각자 스스로 制斷한다 ; 위로는 천자가 없고 아래로는 방백이 없다 ; 힘으로 공과 강함을 다투니 승자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 전쟁이 멈추지 않으니 거짓으로 속임이 아울러 일어났다. 이 때를 당하여 비록 도덕이 있다고 하나 계락을 얻지 못하였다 ; 도모하여 강하게 되어 협함에 힘입음이 견고한 성채

-
- 10) 江永, 『群經補義』卷五, 『欽定四庫全書』經部 : 至春秋時盟詛益煩, 雖知屢盟長亂而不能革, 逮其後渝盟不信者多, 明神亦不能誅殛, 人知盟之無益, 至戰國時此風遂衰, 毛遂至楚定從用盟, 僅一見, … 卽盟詛之事, 可以觀世變, 當其盛也, 雖聖人不能不爲設官制禮, 一若推波助瀾 及其衰也, 不待法禁戒令而自止之.
- 11) 『史記·張儀列傳』, 臺北, 鼎文書局, 民國 88年6月, 十一版, 2285쪽 : 且夫諸侯之爲從者, 將以安社稷尊主彊兵顯名也. 今從者一天下, 約爲昆弟, 刑白馬以盟洹水之上, 以相堅也. 而親昆弟同父母, 尙有爭錢財, 而欲恃詐僞反覆蘇秦之餘謀, 其不可成亦明矣.

만을 믿게 되었다; 계속하여 인질을 주고 받으며 거듭 약속하고 맹세함으로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한 고로 孟子·孫卿과 같은 유가의 선비는 세상에서 버림받게 되었고, 유세하고 권모술수를 쓰는 무리들이 세속에서 존귀하게 여겨졌다. 이가 바로 蘇秦·張儀·公孫衍·陳軫·代·厲와 같은 족속으로, 從橫短長の說이 나타나, 때와 경우에 따라 편리한 쪽을 따르게 된 것이다.¹²⁾

이에 더하여 『漢書·刑法志』에도 유사한 기록이 있다.

춘추이후에 약하고 작은 것을 멸하고 삼키니 戰國이 되었다. 점차 講武의 예가 더하여져 戲樂으로 여기게 되었다 ... 先王의 예는 淫樂 중에 없어졌다. 雄桀의 무리가 기세를 타고 시국을 도우니, 權詐로써 서로 다투어 없어지니, 吳에는 孫武, 齊에는 孫臏, 魏에는 吳起, 秦에는 商鞅이 있어 모두 상대를 사로잡아 승리를 얻으니 서책에 전하여 나타났다. 이때를 당하여 合從連衡하고 서로 바뀌어 공벌하며 번갈아 자웅을 겨루었다. ... 세상이 功利를 다투니 유세하는 자로 孫·吳가 가장 뛰어났다. 이때에 오직 孫卿이 王道에 밝아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며 말하기를 : 「저 孫·吳는, 세력과 권리를 높이하고 變詐를 귀하게 여긴다; 어지럽고 어두운 나라에서 행하니, 君臣사이에 간극이 있게 되어 상하의 마음이 떠나 政謀가 어질지 못하게 된 까닭으로 변화여서 속이게 된 것이다.¹³⁾

춘추시대에는 信義를 중시하여, 禮讓을 폐하지 않고 위기를 틈타지 않았으며 喪이 있을 때는 공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시대에는 병사를 움직임에 속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喪은 불측한 수단이 되어, 다른 나라에 喪事와 危難이 있을 때 타국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공격하였고,

12) 『戰國策·劉向書錄』, 1196-1197쪽 : 貪饕無恥, 競進無厭, 國異政教, 各自制斷; 上無天子, 下無方伯; 力功爭強, 勝者爲右; 兵革不休, 詐僞並起. 當此之時, 雖有道德, 不得施謀. 有設之強, 負阻而恃固; 連與交質, 重約結誓, 以守其國. 故孟子·孫卿儒術之士, 棄捐於世, 而游說權謀之徒, 見貴於俗. 是以蘇秦·張儀·公孫衍·陳軫·代·厲之屬, 生從橫短長之說, 左右傾側.

13) 『漢書·刑法志』, 臺北, 鼎文書局, 1997, 1085-1087쪽 : 春秋之後, 滅弱吞小, 並爲戰國, 稍增講武之禮, 以爲戲樂 ... 先王之禮沒於淫樂中矣. 雄桀之士因勢輔時, 作爲權詐以相傾覆. 吳有孫武, 齊有孫臏, 魏有吳起, 秦有商鞅, 皆禽敵立勝, 垂著篇籍. 當此之時, 合從連衡, 轉相攻伐, 代爲雌雄. ... 世方爭於功利, 而馳說者以孫·吳爲宗. 時唯孫卿明於王道, 而非之曰 : 「彼孫·吳者, 上勢利而貴變詐, 施於暴亂昏媾之國, 君臣有間, 上下離心, 政謀不良, 故可變而詐也.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따라서 전국시대에는 서로 속고 속이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일상적인 외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소위 ‘권모라고 하는 것은 바름으로 나라를 지키고 군사는 속임수로 쓰는 것이니, 먼저 계책하고 후에 전쟁하며 형세를 겸하고 음양을 둘러싸 기교를 부리는 것’¹⁴⁾이라고 하는 것은 춘추전국시대 이래 ‘기책을 내어 복병을 두고, 이리저리 속이는 兵事를 동시에 행하는 것’¹⁵⁾과 같은 시대적 기풍이었다.

비록 합중연횡이 계속되었지만, 각국들은 서로 다른 계략이나 속셈을 품고 있었다. 魏·趙·韓·燕·楚 다섯 나라는 합중으로 秦에 대항하였으나, 실제로 출병한 것은 魏·趙·韓뿐이어서 결국 실패하였고, 魏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자 惠施를 초와 진에 파견하여 강화를 모색하였다.¹⁶⁾ 합중의 효과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진나라로 하여금 연횡을 가능하게 하여 여섯 나라를 각각 격파하고 천하를 얻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시대기풍이 이미 ‘信’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고로 할 만한 것이 있는데, 劉向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전국시대 군주의 덕은 淺薄하여 그를 위해 계책을 꾸미는 자는 기세로써 바탕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때에 의지하여 하였음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그 계책은 급함을 붙들어 위태로움을 지탱하여 모든 권세가 되니, 비록 나라를 다스려 교화할 수 없다 하더라도 兵革으로 시급함을 구하는 형세다. 모든 뛰어난 자들이 때를 헤아려 군주가 능히 행한 바, 奇策과 異智를 내어 위기를 바꾸어 안온케 하고, 망함을 옮겨 존치케 한 것은 또한 기쁘다 할 수 있고 모두가 때 불 만한 것이다.¹⁷⁾

14) 『漢書·藝文志』, 1758쪽 : 權謀者, 以正守國, 以奇用兵, 先計而後戰, 兼形勢, 包陰陽, 用技巧者也

15) 『漢書·藝文志』, 1762쪽 : 出奇設伏, 變詐之兵並作

16) 『戰國策·楚策三』, 五國伐秦, 545-546쪽

17) 『戰國策·劉向書錄』, 1198쪽 : 戰國之時, 君德淺薄, 爲之謀策者, 不得不因勢而爲資, 據時而爲. 故其謀, 扶急持傾, 爲一切之權, 雖不可以臨國教化, 兵革救急之勢也. 皆高才秀士, 度時君之所能行, 出奇策異智, 轉危爲安, 運亡爲存, 亦可喜, 皆可觀

Ⅲ. ‘信’관념변화의 영향

1. 신흥세력의 발흥: 종횡가와 병가

종횡가와 병가가 先秦학술의 兩家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쟁론이 있다. 『漢書·藝文志·諸子略』에는 「縱橫家者流，蓋出於行人之官」이라 기재하였고, 병가는 곧 「蓋出古司馬之職，王官之武備也」¹⁸⁾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원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대의 王官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춘추전국시대의 기풍은 서주시대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에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형세 하에서는 종횡가와 병가가 특별히 군주에게 중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정치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었다.

『文心雕龍·論說』에 보면,

전국시기 칠웅이 쟁패할 때에 이르러 유세하는 무리들이 일어났다; 함중연횡으로 일을 도모함에 참여하였고, 계책의 장단으로 세력을 다투었다; 탄환이 구르는 것처럼 그 교묘한 언사를 날리고, 항쇄로 목을 건 것처럼 정밀한 술책을 간직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책사의 辨說은 九鼎의 보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論客의 세치 혀는 백만의 군대보다 강했다. (소진은) 위풍당당한 六國의 印綬를 찢으며, (장의는) 부유한 五部の 大名에 봉해졌다.¹⁹⁾

여기에서 보면 종횡가는 언사로써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데 능숙했음을 알 수 있다. 종횡가는 지혜와 계략, 권모를 의지하여 군주와 국가를 위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가 주장하는 仁·義·禮·智·信 등의 윤리도덕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蘇秦이 말한 아래의 인용문에서 잘 나타난다.

18) 『漢書·藝文志』, 1740·1762쪽.

19) 『文心雕龍·論說』, 『新釋文心雕龍』, 臺北, 三民書局, 民國83年, 186쪽; 譬戰國爭雄, 辨士云涌; 從橫參謀, 長短角勢; 轉丸騁其巧辭, 飛鉗伏其精術. 一人之辨, 重于九鼎之寶; 三寸之舌, 强于百萬之師. 六印磊落以佩, 五都隱賑而封.

신의도덕을 행하는 자는 모두 스스로 完善함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古人의 舊制를 존중하는 것은 진취적인 도가 아닙니다. 게다가 삼왕이 대를 이어 흥기하고 오패가 교대로 창성한 것이 모두가 尊古復制하였기 때문은 아닙니다.²⁰⁾

윤리도덕은 개인 수양의 덕목이었으나, 전국시대의 다변하는 형세 속에서는 ‘進取之道’가 아니었다. 소위 종횡가로 불리는 이들은 합종연횡의 유세와 결책에 참여하면서 승리의 책략과 임기응변을 강구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음모로 국가를 전복시키는 間者활동에 직접 참여하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병가와 마찬가지로 간자를 사용하여 승리를 얻는 것을 매우 중시하였다.

저명한 종횡가는 한 차례의 중요한 연횡 또는 합종의 성공으로 전쟁의 형세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심지어는 七國 간에 강약의 변화를 조성하기도 하였다.²¹⁾

이처럼 병가와 종횡가의 목적은 일치하였으나, 양자가 취한 관점과 수단은 서로 달랐다.²²⁾ 작전의 지휘는 일종의 전문적인 기술이 되기 시작하였고 방법이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전문적으로 작전을 지휘하는 장군과 방법가가 배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춘추시대 말기 즈음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때에는 이미 저명한 장군과 걸출한 방법가가 출현하였다.²³⁾

그러나 班固와 같은 역사가는 그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그는 종횡가에 대해 「일을 저울질 하여 制宜함을 말하는 것으로 명을 받으나 말을 받지 않는 것을 그 장점으로 한다. 邪人이 이를 함에 미치면 則 위를 속이고 그 믿음을 저버린다」²⁴⁾고 생각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춘추전국시대 이래 「出奇設伏, 變詐之兵並作」의 기풍이 일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종횡가와 병가는 교활하고 간사하

20) 『戰國策·燕策一』, 人有惡蘇秦於燕王者, 1047쪽 : 且夫信行者, 所以自爲也, 非所以爲人也, 皆自覆之術, 非進取之道也. 且夫三王代興, 惡霸迭盛, 皆不自覆也.

21) 楊寬, 『西周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9, 2쪽.

22) 李訓詳, 『先秦的兵家』, 國立臺灣大學歷史研究所碩士論文, 民國78年, 100쪽.

23) 앞의 책, 『西周史』, 2쪽.

24) 『漢書·藝文志』, 1740쪽 : 言其當權事制宜, 受命而不受辭, 此其所長也. 及邪人爲之, 則上詐諛而棄其信.

며 체계가 많고, 특히 권모술수를 쓰면서 신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이다. 전국시대가 신의를 말하지 않는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그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횡가와 병가가 완전히 ‘信’의 관념을 버렸던 것만은 아니었다. 중횡가는 사회정치 전반의 도덕을 윤리화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특히 ‘爲人’의 사회정치 활동과 ‘爲己’의 개인적 도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의 정치에서 책략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였다.²⁵⁾

병가는 장령에 대해서도 도덕상의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사마천은 『史記·太史公自序』에서 「孫吳列傳」의 저술원인에 대해 :

信廉仁勇이 아니고서는 병법을 전수하고 검술을 논할 때 그 병법과 검술이 도와 부합하여 안으로는 몸을 닦고 밖으로는 임기응변을 취할 수 있다. 군자는 이러한을 더욱 중시하고 동시에 이를 덕으로 삼았다.²⁶⁾

라고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司馬法』은 仁·義·智·勇·信으로써 장수의 덕목으로 삼았고, 『孫子·始計篇』은 智·信·仁·勇·嚴으로써 장수의 덕목으로 삼았는데²⁷⁾ 이 책들은 모두 ‘信’을 장수선발의 표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병가의 전쟁관을 보면 당시에 이미 爭王爭霸의 세계, 至道備德의 ‘上善不戰’이라는 지식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병가에게 최선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주목한 바는 곧 ‘全勝存國’하에서 일을 일단락 짓는 것이었다.²⁸⁾ 恩信을 말하고, 윤리도덕을 권면하고, 작위와 포상을 중시하는 국가는 모두 손쉽게 전쟁으로 백성을 몰아갈 수 있어 준엄한 형벌과 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상하 간에 기대하고 공동으로 지킬 수 있는 행동규범을 세우는 것은 신뢰로써 서로를 구속하는 것에 의

25) 앞의 책, 『縱橫家與中國文化』, 130쪽.

26) 『史記·太史公自序』, 3313쪽 : 非信廉仁勇不能傳兵論劍, 與道同符, 內可以治身, 外可以應變, 君子比德焉.

27) 『司馬法·仁本』, 『司馬法今註今譯』,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66年, 3쪽; 『孫子·始計篇』, 『孫子今註今譯』,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70年, 72쪽.

28) 앞의 논문, 『先秦的兵家』, 244쪽.

존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상하 간의 행동규범은 개인적인 은혜와는 다르다. 이는 전이될 수 있고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과 ‘恩’의 기능은 상당히 일치하며, 모두 갈라진 상하관계를 매울 수 있다. 징벌의 확대는 성문법전의 출현을 수반하였기 때문이고, 병가가 신상필벌을 강조했던 이유는 모두 그러한 의도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²⁹⁾

2. 진의 통일과 信관념의 轉變

진이 점차 통일을 이루어 감에 따라 ‘信’의 관념은 직접적으로 법가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법가는 군주의 권위를 강조하여 법으로써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商君書·修權』에 나오는 다음의 글을 보자.

나라가 다스려지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음이다 ; 첫 번째는 法이요 둘째는 信이요 세 번째는 權이다. 법이라는 것은 君臣이 함께 부리는 것이다 ; 信이라는 것은 군신이 함께 세우는 것이다 ; 權이라는 것은 君이 獨制하는 것이다. 人主가 지킴을 잃으면 즉 위험하게 되고 ; 군신이 법을 해석함에 사사로우면 반드시 난이 생긴다. 때문에 법을 세움에 밝게 구별해야 하고 사사로움으로 법을 해하지 않으니 즉 다스림이다 ; 권력으로 눌러 다스려 군주가 독단하면 즉 두려워하게 된다 ; 백성이 그 상을 믿으면 일이 성공하고 그 형벌을 믿으면 無端하여 어지럽게 된다. 오직 밝은 군주는 권익을 아끼고 신의를 중시하여 사사로움으로 법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³⁰⁾

법가 사상에서 ‘信’은 윤리도덕의 범위를 벗어났는데, 치국의 방법 중

29) 앞의 논문, 『先秦의 兵家』, 76-78쪽.

30) 『商君書·修權』,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57年, 25쪽 : 國之所以治者三 : 一曰法, 二曰信, 三曰權. 法者, 君臣之所共操也; 信者, 君臣之所共立也; 權者, 君之所獨制也. 人主失守, 則危; 君臣釋法任私, 必亂. 故立法明分, 而不以私害法, 則治; 權制獨斷於君, 則威; 民信其賞則事功成, 信其刑則姦無端. 惟明主愛權重信, 而不以私害法.

하나는 바로 ‘信賞必罰’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법을 믿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信’은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법가의 입장에서 보면 ‘信’은 이미 윤리도덕의 표현이 아니었고, 특히 ‘義’는 국가가 인민을 통치함에 있어서 더 이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법가가 ‘信’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국가 통치의 각도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별히 人主의 위세를 강조하고 있다.³¹⁾ 이는 유가의 관념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며 순수하게 법술에 의존한 결과로써, 백성은 단지 형법을 두려워하여 표면적으로 순복하는 것일 뿐이다.³²⁾ 공자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치로서 이들을 이끌고, 형벌로서 이들을 가지런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면하여도 부끄러움이 없고, 덕으로 이들을 이끌고, 예로서 이들을 가지런히 한다면 부끄러워 바로잡는 바가 있다.³³⁾

법가사상이 비록 국가정치를 질서정연하게는 할 수는 있었지만, 순자는 여전히 秦에서 보였던 질박하고 질서 있는 사회로 바라보았다. 즉 백성은 질박하고 순수하며, 관리사대부는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어 법을 지키고 공사에 힘쓰며, 조정은 간단하나 효율이 높은 모습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순자는 그 정치를 행하는 태도에 편차가 있음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법치국가에서 나타나는 내재된 우환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인민은 대개 법을 두려워하여 복종을 하나 왕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⁴⁾ 때문에 군

31) 『商君書·畫策』, 34쪽; 故其制民也, 如以高下制水, 如以燥溼制火. 故曰: 仁者能仁於人, 而不能使人仁; 義者能愛於人, 而不能使人愛. 是以知仁義之不足以治天下也. 聖人有必信之性, 又有使天下不得信之法. 所謂義者, 爲人臣忠, 爲人子孝, 少長有禮, 男女有別; 非其義也, 餓不苟食, 死不苟生. 此乃有法之常也. 聖王者, 不貴義而貴法, 法必明, 令必行, 則已矣.

32) 羅獨修, 『先秦勢治思想探尾』, 臺北, 文化大學出版部, 民國91年, 189-195쪽.

33) 『論語·爲政』, 『論語今註今譯』,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69年, 16쪽: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34) 閻鴻中, 『從崇尚「長子」的氣風看西漢前期政治』, 國立臺灣師範大學歷史研究所碩

주가 국가를 통치하는 데에 있어서 ‘信’을 바라보는 시각이 법가가 위주가 되어서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가 주창하는 일련의 도덕적 견해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秦왕조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진시황 28년 琅邪臺의 立石에 秦의 德을 “28년에 황제께서 처음으로 황제에 올라 법도를 바로잡고 만물의 준칙으로 삼았다. 人事를 밝히어 父子가 화목하였다. 聖智와 仁義로 도리를 분명히 나타내었다”³⁵⁾라고 새겨 기리고 있으며, 이 시기 기록되어진 여타의 내용 중에서도 유가적 도덕사상의 색채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秦은 법치를 우선적으로 숭상하는 국가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진시황의 巡幸 刻石에는 스스로 공덕을 칭송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표현된 의의는 실제적인 의의보다 크게 묘사되고 있다. 「爲吏之道」는 지방의 하급관리를 지도하는 문장으로 ‘忠信’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유가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진나라 시기 각지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秦律에는 도덕화의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유가의 영향은 여전히 미미하였고 비교적 단순한 법제였기 때문에 ‘仁恩과 義가 없음을 새긴 것’이라고 일컬어졌다.³⁶⁾

선진시기에는 ‘義’의 발전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 立身處事の 윤리도덕 외에 秦이 六國을 멸하여 통일을 점차 완성하게 됨에 따라 대통 일제국의 「統治之道」와 그 궤를 같이 하면서 형법의 결점을 보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士論文, 1988, 46-47쪽.

- 35) 『史記·秦始皇本紀』, 245쪽 : 維二十八年, 皇帝作始端, 端平法度, 萬物之紀, 以明人事, 合同父子, 聖智仁義, 顯白道理.
- 36) 「爲吏之道」에 대한 유가와 법가의 색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 앞의 논문 『從崇尚「長子」的氣風看西漢前期政治』; 余宗發 『雲夢秦簡·中思想與制度鉤沉』, 臺北, 文津出版社, 民國 81年; 高敏 『三綱五常與秦王朝的道德教化』,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1997年 第1期, 1997.

IV. 결론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시대기풍이 더욱 교활하고 괴이해져 권모와 무력을 이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인 듯 인식되었다. 자신에게 유리한 형세를 만들기 위해서 각국 간에는 서로 속이고 믿음을 깨뜨리는 일을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믿을 논할 수 없었다. 서약 또한 거의 와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합종연횡을 이룬 각국은 ‘利’에 근거하여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한 결과 결국 秦의 천하통일이 완성될 수 있었다.

춘추전국시대의 정치발전은 ‘信’에 대한 관념이 변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형성은 두 가지 신흥세력인 종횡가와 병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종횡가와 병가의 공통 목표는 모두 국가로 하여금 강성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패하지 않는 위치에 서는 것일까라는 점이었다. 현실정치의 환경에 처해서도 그들은 ‘信’의 도덕적 관념을 지킬 수 없었고, 또한 그들의 행위는 전국시대 ‘信’을 중시하지 않는 기풍을 형성하게 하였다.

秦의 통일에 따라 ‘信’의 관념은 도구적인 용도로 변하여 統治之道가 되었고, 선진시기와는 다르게 도덕적 범주를 벗어났다. 진은 법에 의거하여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자연히 법가적 통치방법을 계승하였다. 법가는 ‘信’을 국가 통치의 도구로 삼았고 군주가 ‘信’이 있어 여러 도덕적인 역량에 호소하지 않는 것이 신민을 다스리는데 이로웠는데 이는 당연히 통일제국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춘추시대부터 전국시대까지 ‘信’의 관념은 확실히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 중에는 또한 영원불변의 부분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信’이 갖고 있는 윤리도덕의 관념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성, 즉 만고불변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知伯의 신하 豫讓이 그 한 예이다. 지백을 대신하여 복수를 하려고 수차례 趙襄子를 죽일 방도를 강구하였고 심지어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양자는 그는 의인이니 사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예양은 최후에 복수를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오히려 전국시대에도 여전히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忠信義行이 존재했음을 증명한다.

앞서 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信’의 윤리도덕에 내재된 의미는 외부의 열악한 시공과 환경으로 좌절될 수 없지만, 아마도 현실정치의 이해와 충돌하였을 때에는 ‘信’의 관념이 희생되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信’이라고 하는 윤리도덕에 내재하고 있는 의미가 여전히 사람이 처세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하고 영원불변한 기본덕목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信의 관념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탐색하고자 한 본문에서의 시도는 향후 공유재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에 대한 근원적 요소를 탐색하는데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술한 것이다. 본문에서 탐색한 역사적 내용들이 현재 제주지역사회에서 공유자원의 활용을 두고 발생한 갈등의 요소에 대한 현실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論語今註今譯』,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 69年.
- 『史記』, 臺北, 鼎文書局, 民國 88年6月, 十一版.
- 『司馬法今註今譯』,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 66年.
- 『商君書』,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 57年.
- 『孫子今註今譯』,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 70年.
- 『新釋文心雕龍』, 臺北, 三民書局, 民國 83年.
- 『資治通鑑·秦紀』, 臺北, 宏業書局, 民國 82年10月, 再版.
- 『戰國策』, 臺北, 里仁, 民國 71年.
- 『春秋左傳今註今譯』 下冊,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 71年.
- 『漢書』, 臺北, 鼎文書局, 1997
- 江永, 『群經補義』 卷五, 『欽定四庫全書』 經部.
- 高敏, 「三綱五常與秦王朝的道德教化」,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1997년 第1期, 1997.
- 羅獨修, 『先秦勢治思想探尾』, 臺北, 文化大學出版部, 民國 91年.
- 傅劍平, 『縱橫家與中國文化』, 臺北, 文津出版社, 1995.
- 徐杰令, 「春秋邦交思想述論」, 『求是學刊』 2003年 01期, 黑龍江大學, 2003
- 徐難子, 「試論春秋時期的信觀念」, 『中國史研究』 1995年 第4期,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1995.
- 楊寬, 『西周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9.
- 余宗發, 『「雲夢秦簡」中思想與制度鉤撫』, 臺北, 文津出版社, 民國 81年
- 閻鴻中, 『從崇尚「長子」的氣風看西漢前期政治』, 國立臺灣師範大學歷史研究所碩士論文, 1988.
- 汪濤, 『先秦儒家誠信思想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 李訓詳, 『先秦的兵家』, 國立臺灣大學歷史研究所碩士論文, 民國 78年.
- 張繼軍, 『先秦道德變遷論』, 黑龍江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 張魯君, 『先秦儒家“信”觀念研究』,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 정창원, 「중국 춘추시기를 중심으로 본 신(信)관념」, 『담라문화』 42호, 제주대학교 담라문화연구소, 2013.

陳智勇, 「試析春秋盟誓對春秋時人的影響及時人對盟誓與盟主的評價」, 『中國歷史博物館館刊』 2000年 02期, 中國國家博物館, 2000.

Abstract

THE ALTERATION OF NOTION OF TRUST(信) in the the Warring States period

- A Preliminary Studies about Public Management of
Nature in Jeju II -

Jung, Chang-Won*

In the study of continuous management of common pool resources that Jeju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Team aims, the use and management of common pool resources can say to be derived from ideological basis "Social commitment - Trust (信)". When the idea of Trust (信) in consciousness of multilateral maintains, the social commitment for common pool resources will also be able to maintain reasonable binding force.

Trust (信)" exists as actual personal morality for a very long time. However, the Trust (信) becomes the notion of real morality from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nd the Confucianists (儒家) succeed and complete the ideological system in the pre-Qin period. Many pre-Qin period schools have different point of view for the Trust, but basically, they agree that the Trust (信) is an important moral ethics.

The idea of Trust (信)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would be forced to bring the change, depending on the age. However, during the process of change, it also involves the part of eternal unchange. The notion of morality, which the Trust (信) includes, has construction-transcendent eternity. In other words, it has a part of a constant perpetuity.

* Jeju National University

Inherent meaning of ethics of Trust (信) cannot be frustrated by external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but when it confronts the understanding of real politics, the concept of Trust (信) may sacrifice. However, the inherent meaning of the Trust (信) is still important and eternal unchangeable basic virtue in getting along with people and achieving social consensus.

As reaching the Warring States Periods, the period spirit becomes more cunning and odd, and so it seems to be recognized that winning the victory by using the trick and force has direct effect. To make favorable circumference of their country, the countries repeat lying and breaking the Trust among them. Therefore, the Trust (信) cannot discuss no longer in this situation. The vow also seems to become almost collapsed. As the result of not believing in each other, the universe unification of the Qin Dynasty (秦) finally could be completed.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spring-autumn period and Warring States Periods shows clearly that the idea of Trust (信) is changing. The formation of this phenomenon is closely related in political strategists (縱橫家) and military strategist in ancient China (兵家). The common goal of them is to make it rigid, and the important thing for them is how to stand at the position that does not defeat. They could not keep the moral ideas of Trust (信) in real politics, and also their actions build the spirit that does not concern the Trust (信) of the Warring States Periods important.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of Qin (秦), the concept of the Trust (信) is changed to instrumental use and becomes method of ruling. Unlike the previous period, it deviates from the moral category. Jin establishes the nation under the laws, so it succeeds in Legalists(法家) ruling methods. The Legalists (法家) make the Trust (信) as a tool for governing country. It is beneficial to govern the subjects if does not complain to the moral capability. This is, of course, related to the emergence of a unified empire.

From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to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 idea of Trust (信) shows definite change. However, during the process of change, it also implies the part of the eternal unchange.

As describe above, the try for exploring the understanding of ideological change of the Trust (信) is for providing historical background to search fundamental elements of common pool resources'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Thus, I expect to the historical information above is provided as a basis to the current conflict elements in Jeju community that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SSK Research Team tries. I also hope that it becomes historical background for original searching of current social conflicts through exploring the conscious change of Trust (信) after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Key Words : Trust (信), Profit(利), Warring States period(戰國時代), Public Management of Nature

교신 : 정창원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E-mail : cau16a@empal.com)

논문투고일 2014. 06. 16.

심사완료일 2014. 06. 20.

게재확정일 2014. 06. 25.